

# ICT 수출 '역대 최대'... 반도체 3년 연속 1000억달러 돌파

ICT 수출 2333억달러... 2.5% ↑  
반도체 수출액 1308억6000만달러  
2차전지, 유망 수출품목으로 떠올라

〈2022년 수출입 및 증감률(전년 대비)〉

/과기부

구분 (억, %)	전체산업			ICT산업		
	2020년	2021년	2022년P	2020년	2021년	2022년P
수출	5125(△5.5)	6444(-25.7)	6839.4(-6.1)	1835.1(-3.8)	2276.10(-24)	2333.20(-2.5)
수입	4676.3(△7.1)	6150.9(-31.5)	7311.8(-18.9)	1126.3(-3.9)	1350.2(-19.9)	1524.7(-12.9)
무역수지	448.7	293.1	△472.3	708.8	925.8	808.5

※ 전체산업 대비 ICT산업 수출 비중 : (2020) 35.8% → (2021) 35.3% → (2022) 34.1%  
※ ICT산업 수출 추이(억) : (2019) 1,768.6 → (2020) 1,835.1 → (2021) 2,276.1(종전최고치) → (2022) 2,333.2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전반적으로 수출 환경이 나빠진 가운데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2333억달러로 종전 최고치(21년 2276억달러)를 경신하며 2년 연속 2000억달러를 상회했다.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반도체와 휴대폰, OLED, 2차 전지 등 주요 유망 품목들이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ICT 수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ICT 수출은 2333억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반기 대외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6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로 전환했음에도 1996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ICT 수입은 1524억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2.9% 늘었다. 무역수지는 808억5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품목별로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휴대폰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2차 전지 등 유망 품목은 증가했으나 하반기 부품 수요 둔화로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기기는 감소했다.

지난해 반도체 품목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308억6000만달러로 3년 연속 1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품목 역대 최고 실적에 대해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의 급격한 단가 하락에도 17개월 연속으로 수출액 100억달러를 상회하는 등 상반기의 견조한 실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LED는 TV, 모바일 등 채택범위 증가로 수요 지속되며 전년 대비 4% 증

가한 151억달러를 달성, 디스플레이 수출의 60%를 넘어서며 주력 품목으로 도약했다.

휴대폰은 기기 둔화로 완제품 수출은 감소했으나 부품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한 146.8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차전지는 전기차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15.5% 증가한 100억달러를 달성해, 유망 수출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출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 등에 따른 교역량 둔화로 전년 대비 4.9% 감소한 1023억 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베트남은 366억4000만달러로 4.3% 증가했다. 미

국은 291억8000만달러로 4.4% 증가, 3년 연속 증가했다. 유럽연합은 137억 3000만달러로 7.5% 증가했으며 일본은 44억3000만달러로 2.7%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과 미국 수출액은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12월 ICT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3.6% 감소한 169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 등으로 주요품목과 지역별 수출이 감소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ICT 수입액도 10.9% 감소한 117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2월 무역 수지는 51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전체 수출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달성한 흑자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주요 4대 품목 모두 수출액이 감소했다. 반도체는 메모리 단가 하락세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8% 감소한 92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디스플레이는 35.2% 감소한 16억 달러, 휴대폰은 28.9% 감소한 9억 5000만 달러, 컴퓨터·주변기기는 29.3% 줄은 11억7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EU, 일본 등 주요 5개국 수출액 모두 줄었다.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위축·IT 기기 생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중 수출액은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공장 중단, 내수 정체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1% 줄은 67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베트남, 대미, 대EU, 대일 수출액은 각각 19.8%, 4.9%, 17.7%, 15.4% 감소해 28억2000만 달러, 25억 달러, 10억3000만 달러, 3억3000만 달러였다.

/원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中企 R&D 도전기회 늘리고 책임성 강화

중기부, 전 단계 걸쳐 제도혁신 방안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대폭 부여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도전 기회가 넓어진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의 연구 활동에 대한 책임성이 더욱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청, 선정, 수행, 종료 등 R&D 전 단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에 따르면 역량을 갖춘 기업들의 R&D 기회가 늘어난다. 중기부는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해도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한다.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모험자본 중심의 고성장 기업의 기술혁신 도전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모험자본은 불확실한 위험이 있지만 성공할 경우 평균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의미한다.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R&D의 실적·성과 중심으로 기입하도록 작성 분량이 대폭 축소된다. 현재 30~40페이지 수준에서 20페이지 이내로 줄여준다.

중기부는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 R&D를 바라보고 선행연구와의 연속성·시너지가 인정되면 과감하게 지원한다. 정성지표도 폭넓게 인정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고르게 지원할 방침이다.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

도 보장한다. 중기부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변화돼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정부가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만큼 기업은 정산 단계 시 연구비 사용처, 내역,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게 된다.

책임성이 강화된다. 중기부는 부정행위를 엄중히 조치한다. 특히 인건비 유용 또는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연구 부정행위의 경우 제 평가시 강도 높게 반영한다.

/김승호 기자 bada@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할인한도 확대

현재보다 50% 확대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할인한도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 관련 지

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된다.

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수급자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는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커진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자랑스러운 충북인 대상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이 '자랑스러운 충북인 대상'을 수상했다.

중기중앙회는 충북도민회중앙회 주최로

지난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충북인 신년교례회' 시상식에서 김 회장이 최고상인 '자랑스러운 충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승호 기자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설을 맞아 전통

시장에서 소통하기 위해 나섰다. 박 이사장은 지난 11일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상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설을 맞아 대목을 준비하는 상인들의 현장을 둘러보고, 경기상황에 대한 현장 소통을 위해 마련했다. 박 이사장(왼쪽 2번째)이 중앙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소진공

## 휴게실 설치 의무화에도 10곳 중 4곳 위반

고용부, '학교 등 휴게시설' 점검

환경미화원, 경비 등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4곳은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시정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대학교 및 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대학교 185곳, 아파트 94곳 등 27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인 124곳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 위반이 적발됐다.

대학교 10곳과 아파트 2곳 등 12개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대학교 82곳과 아파트 40곳 등 122곳에서 261건의 설치·관리 기준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사항은 휴게공간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크기, 온도·환기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기준은 최소 바닥 면적의 경우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다.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의자 등과 마실 수 있는 물 등도 구비돼야 한다.

고용부는 적발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 중 89% 사업장은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